



2018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추계세제분석실
소득법인세분석과

“ 2018년 총수입은 정부 예산안(447.1조원)을 0.5조원 상회하는 447.6조원으로 전망된다. 국세수입은 272.1조원으로 정부예산안(268.2조원)을 3.9조원 상회할 전망이다. 국민연금과 세외수입이 정부예산안(178.9조원)에 비해 3.4조원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2021년간 총수입 증가율은 자산시장 호조세 약화 위험 등을 감안하였을 때 정부 예측치(5.0%)보다 낮은 4.6%로 전망된다.

경기에 대한 국세수입의 변동폭 확대로 세수오차가 커지면서 재정운용상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분석 사항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2018년 총수입 및 2017~2021년의 중기 총수입을 전망하여, 그 결과를 정부와 비교하였음.

- I. 2018년 총수입 전망
- II. 2017~2021년 총수입 전망

또한 최근 세입전망과 실적간의 오차가 확대된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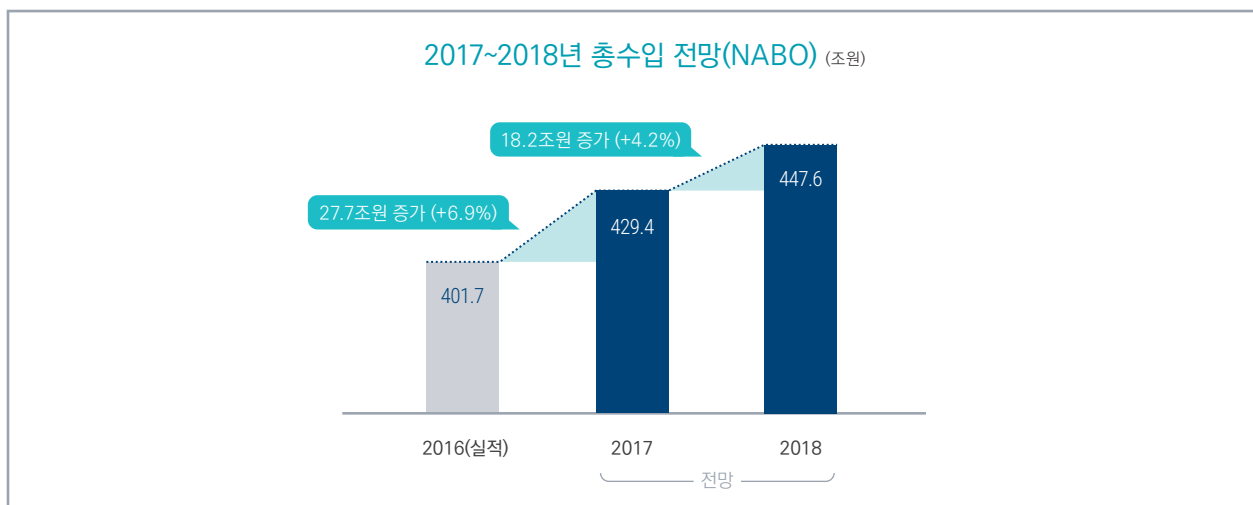
- III. 주요 사항 분석
 - 1. 국세수입 변동성 확대가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
 - 2. 국세외수입 전망의 정확성 제고 필요

I. 2018년 총수입 전망

1. 2018년 총수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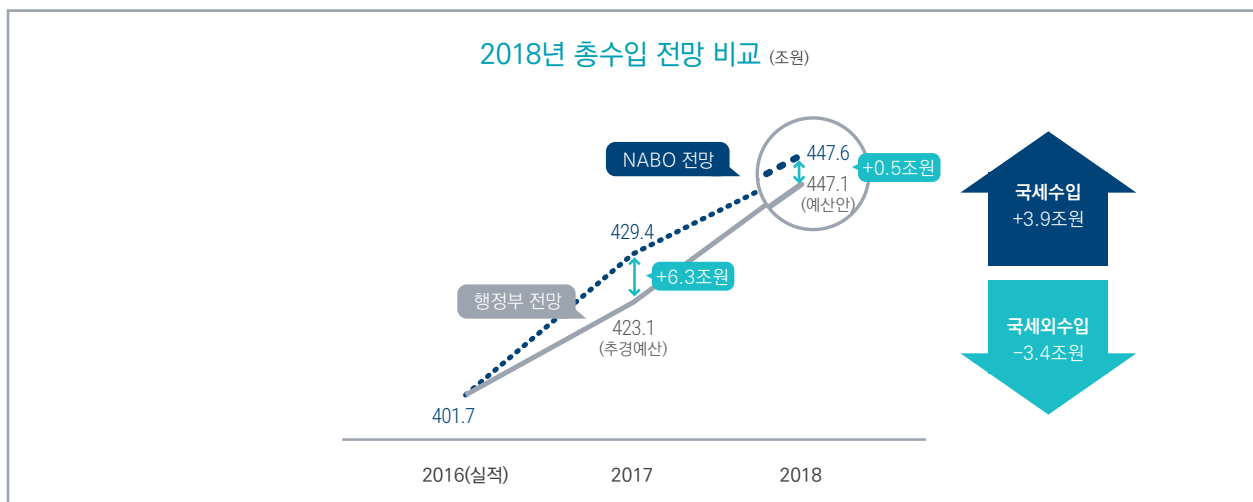
2017년 총수입은 2016년 대비 27.7조원(6.9%) 증가한 429.4조원으로, 추경예산을 6.3조원 상회할 전망이다.

2018년 총수입은 2017년 대비 18.2조원(4.2%) 증가한 447.6조원으로 전망함.



2. 2018년 세입예산안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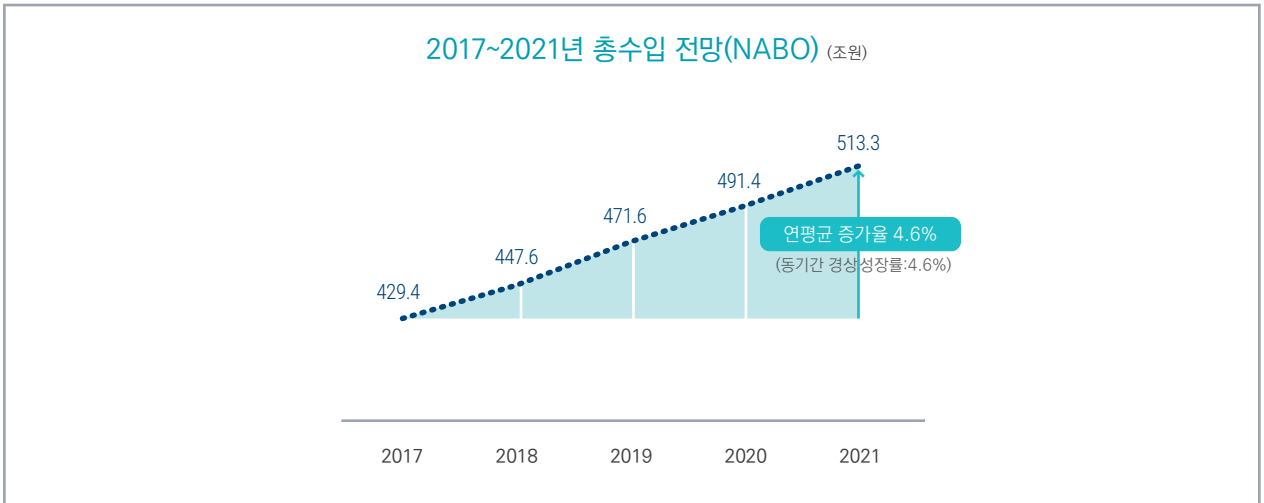
NABO가 전망한 2018년 총수입은 행정부 세입예산안보다 약 0.5조원 높을 것으로 예상됨. 국세수입은 행정부 세입예산안보다 3.9조원 높을 전망이나,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이 행정부 예산안보다 3.4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됨.



II. 2017~2021년 총수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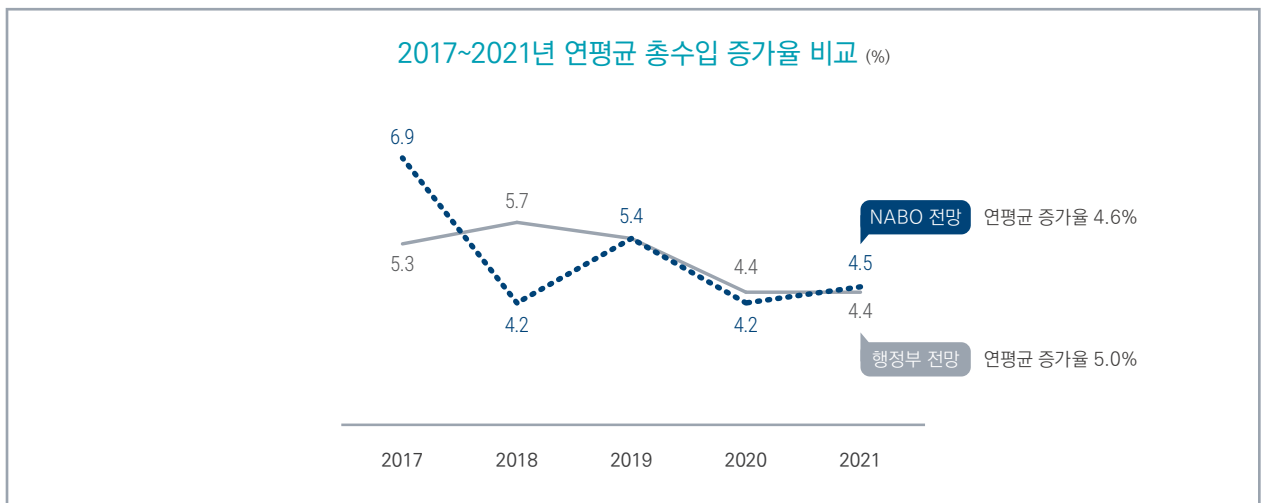
1. 2017~2021년 총수입 전망

2017~2021년 5년간 총수입은 2017년 429.4조원에서 2021년 513.3조원으로 연평균 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세법 개정 효과 및 국민연금 가입자 수 증가 등을 고려한 것으로 경상성장률(4.6%)과 유사한 수준의 증가세임.



2. 2017~2021년 행정부 전망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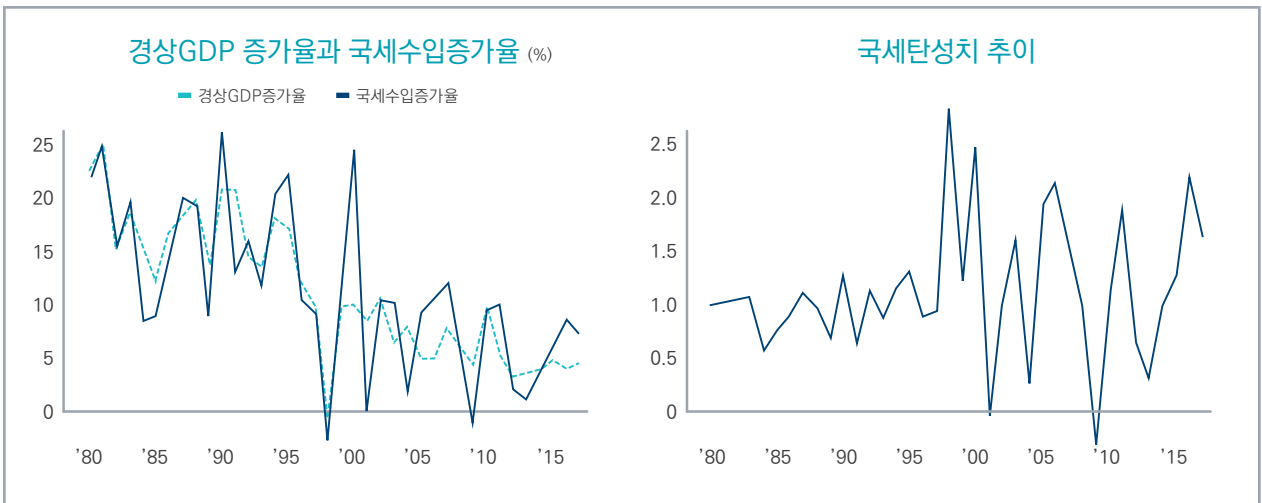
NABO 중기 총수입 증가율은 4.6%로, 행정부안(5.0%)을 하회할 전망이다.



Ⅲ. 세입예산안 주요 사항 분석

1. 국세수입 변동성 확대가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

2000년대 이후 경기변동에 대한 국세수입 증가율의 민감도가 확대되면서 재정운용상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음.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목의 비중 증가, 과세기반의 집중도 심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계모형의 개선 등을 통해 세수예측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국세외수입 전망의 정확성 제고 필요

일부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의 연례적 과대계상 문제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어 해당 수입 전망의 현실화가 필요함.

